

계 열 문 항 1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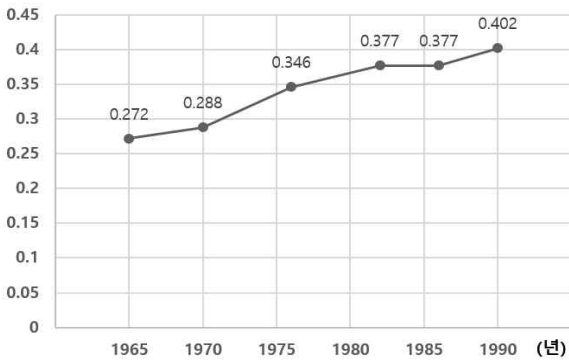
장병만 씨의 고향은 전라북도 완주군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중학교를 마친 뒤부터 줄곧 농사를 지어온 농투성이였다. 1,200평 정도의 논과 400평 정도의 밭농사였는데, 그나마 자기 땅이 아니라 소작농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농사일이 너무나 힘들고 뼈빠지게 일해봐야 빚밖에 남지 않는 희망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1964년 그의 나이 서른한 살 때 식솔을 이끌고 무작정 상경을 감행했노라고 했다.

“이불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야간열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땐 참 청운의 꿈이 있었지요, 서울에 오면 뭔가 새 인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그는 다른 이농민들이 그렇듯 도시 빈민층에 편입되었다. 판잣집이라도 얻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 행세를 하였지만, 그는 셋방살이로 서울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무수히 많은 직업들을 전전했다. 막노동은 물론이고 전철이나 버스칸에서 때 빼는 약이니 지갑이니 하는 것을 파는 세일즈 일도 해보았고, 떠돌이 약장사를 따라다니기도 했으며, 잘만 하면 목돈을 만진다는 소문에 복덕방 거간꾼으로 뛰어보기도 했다. 자기가 들어가 살 수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의 집을 매매하듯이 열정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곤 했던 것이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는 서울에 올라오면서 품었던,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리라는 꿈, 이를테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생을 벗어나고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가슴 벅찬 그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번번이 그 새로운 인생은 오지 않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늘 제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후배가 그에게 말했다. “이미 엄청나게 확대되고 단단해진 이 자본주의 체제가 그런 영성하기 짝이 없는 장 선생님의 꿈을 허락해줄 리가 없는 거지요.” 무심코 내뱉은 후배의 말에, 판자촌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는 결정에 따라 그곳마저 빈손으로 쫓겨날 상황에 처한 장병만 씨는 두 눈으로 분노를 쏟아낼 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림 1>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 추이



<표 1> 1985년도 연령대/학력별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단위: 원)

학력 연령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상	전체
전체	147,571	194,525	245,028	317,214	200,274
20대	137,073	181,272	198,858	265,357	182,193
30대	141,786	192,460	248,718	310,692	201,997
40대	146,862	205,867	288,927	335,550	205,946
50대	165,713	255,101	323,960	418,467	233,320

* 소득 지니계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계수로,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해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해짐.

<나>

고층 건물은 도시 공간에서 부자들이 빈자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고층 건물은 그 자체로 젠트리파이어(gentrifier),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한국의 대도시에서 오래된 주택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일은 우리가 흔히 보아온 일이며, 그 연장선에서 고층 건물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계급 전쟁의 무기로 기능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무기가 정당화되는 방식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로 잘 알려진 지리학자 닐 스미스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독특하게 규정했던 프런티어(frontier)의 개발이 서부에서 동부 도시로 이동해 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적한다. “서부의 평원과 산맥, 숲에 적용되던 황야와 프런티어의 이미지는 이런 장소들이 멀끔하게 문명화되고 난 20세기 후반기에는 미국 동부 도시에 더 많이 적용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교외화 경험의 일부로서 미국 도심들은 ‘도시의 황야’로 인식되었다. 즉 과거 미국 도심들은, 그리고

많은 경우 지금도 질병과 무질서, 범죄와 부패, 마약과 위협의 온상이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서부의 ‘원시적이고 위협하며 야만적인’ 황야가 그랬듯이 ‘도시의 황야’ 역시 발전과 확장의 긍정적인 기대가 얽힌 프런티어로 대체되어야 했다. 스미스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에는 프런티어 이미지에 대한 호소”가 담겨 있으며, “프런티어 담론은 18, 19세기 서부에서든, 20세기 말 도심 지역에서든 정복 과정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의 말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프런티어의 이미지에 호소하고 프런티어가 “야만과 문명의 접점”으로 불릴 때, 고층 건물이라는 젠트리파이어는 ‘야만’을 몰아내고 ‘문명’을 도심에 끌고 오는 것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빈자를 몰아내고 부자를 데려온다. 황폐=쇠퇴=위험=야만=정체=빈자로 가득 찬 도시는 풍요=활력=기회=문명=발전=부자로 재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층 건물이 상징하는 미래적 이미지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즉 고층 건물은 그 자체로 미래로 향하는 발전의 이미지를 도시에 이식함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정당화한다. 고층 건물은 이렇게 빈자를 내쫓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부자들이 도피하는 곳이다. 도시의 공중은 사유화되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밑바닥’ 삶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발밑 도시를 심미적인 배경으로 소비할 수 있다.

<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이 대규모 도시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로버트 모세스이다. 그는 20세기 뉴욕 도시계획의 중심인물로,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마스터 빌더 (Master Builder)’로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다. 모세스의 계획은 뉴욕을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중심의 현대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브루클린-배터리 터널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며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트라이버러 다리는 맨해튼, 브롱크스, 퀸스를 이어주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모세스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근대주의적 도시개발사업자지만 이러한 빛나는 성과 뒤에는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모세스의 재개발은 수천 가구의 강제 이주를 초래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공동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크로스 브롱크스 고속도로 건설로 약 5,000가구가 철거됐고,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 가정이 거주하던 지역이 파괴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강제 이주는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뉴욕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모세스의 뉴욕 재개발은 1960년대 제인 제이콥스와의 대립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제이콥스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지역 주민이자 작가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모세스의 도시계획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녀는 도시녹화사업을 설명한다. 공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공원을 만드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이콥스는 공원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다른 타입의 사람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평일 아침저녁으로는 회사원이 왕래하고 점심시간에는 런치박스를 들고 벤치를 찾는다. 그 외의 시간에는 작은 아이를 데리고 주부가 찾아오거나 학교가 끝날 시간에는 아이들의 함성이 들려온다. 밤에는 변화가에 나온 사람들이 모여들거나, 휴일에는 버스킹 연주와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은 일상적으로 공원을 가로지르고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다양성은, 공원이 주거시설과 오피스, 상가 등 동선의 일부 속에 위치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사람들의 활기도 중요하다. 평일 점심때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오피스가의 공원은 저녁 시간 이후에는 한산해져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 즉 도심부에 녹지를 늘린다는 배려만이 아니라 근처에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이나 생활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공원을 만들기는 어렵다. 제이콥스는 불도저로 슬럼을 일소하여 넓은 도로와 고층단지 사이에 조성한 공원은 그것이 아무리 넓고 좋은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금세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시설물이 될 뿐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제이콥스는 모세스 방식의 대규모 도시 재개발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콥스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소규모 상점,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도시의 활력을 만든다고 믿었다.

1-1. <가>의 ‘장병만 씨의 꿈’에 대해 <그림 1>과 <표 1>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다>의 논지에서 <가>와 <나>에 보이는 ‘도시 재개발’에 대해 평가하시오. (600±60자)

계 열 문 항 2

<가>

우언(寓言)은 짧고 날카로워 문학 속의 기마병이다. 동물이나 허구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인간의 삶을 빗대어 간결하게 표현한다. 중국의 문인 유종원이 남긴 우언은 비록 양은 많지 않으나 전형적인 형상을 이루었다. 그의 작품들은 시대의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서 사회 현상과 인간의 속성을 신랄하게 묘사했다. 그의 대표작인 <부판전>에서 풍자하는 인간 속성의 두 가지 측면을 보자.

부판(蝨蟻)이라는 놈은 짐을 잘 지는 작은 벌레이다. 길을 가다가 무슨 물건이라도 맞닥뜨리면 주워서 머리로 들어 올려 등에 진다. 물건이 무거워 지극히 힘들어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다. 그 등은 꺾끄러워 물건들이 쌓이면 흩어지지 않아, 끝내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모습을 가련하게 여겨 그 짐을 치워 주어서 걸을 수 있게 되어도, 또다시 가져다가 전과 마찬가지로 들어 올려 등에 짊어진다. 게다가 그 놈은 높은 곳에 기어오르기를 좋아하여 힘이 다 빠질 때까지도 멈출 줄을 몰라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 죽고 만다. 비록 덩치가 커다란 사람이라는 존재들도 이 작은 벌레의 지혜와 같다.

<나>

“내가?” 나는 웃었다.

“예, 형님하고 형님 동기 중에서 조(趙)형 하고요.”

“조라니,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애 말인가?”

“예, 그 형이 재작년엔가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지금 여기 세무서장으로 있거든요.”

“아, 그래?”

“모르셨어요?”

“서로 소식이 별로 없었지. 그 애가 옛날엔 여기 세무서에서 직원으로 있었지, 아마?”

“예”

“그거 잘됐군. 오늘 저녁엔 그 친구에게나 가볼까?”

친구 조는 키가 작았고 살결이 검은 편이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살결이 창백한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얘기를 내게 곧잘 했었다.

‘옛날에 손금이 나쁘다고 판단 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파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살았다.’

조는 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술 한 잔씩을 마시고 나서 세무서장이 된 조의 집을 향하여 갔다. 거리는 어두컴컴했다. 다리를 건널 때 나는 냇가의 나무들이 어슴푸레하게 물속에 비춰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게 여전하군.” 내가 말했다.

“그렇까요?” 후배가 웅얼거리듯이 말했다.

조의 응접실에는 손님들이 네 사람 있었다. 나의 손을 아프도록 쥐고 흔들고 있는 조의 얼굴이 옛날보다 윤택해지고 살결도 많이 하얘진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어서 자리로 앉아라. 이거 원 누추해서…. 빨리 마누랄 얻어야겠는데…”

그러나 방은 결코 누추하지 않았다.

…(중략)…

집에는 세무서장인 조가 보낸 쪽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 일 없으면 세무서로 좀 들려주게.’ 아침밥을 먹고 나는 세무서로 갔다. 이슬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흐렸다. 나는 조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서장실에 앉아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아니 내가 비꼬아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고쳐 생각하기로 했다.

조는 러닝샤쓰 바람으로,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붙이고 부채를 부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초라해 보였고 그러나 그가 흰 카바를 씌운 회전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몸짓을 해 보일 때는 그가 가엾게 생각되었다.

“바쁘지 않나?” 내가 물었다.

“나야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높은 자리라는 건 책임진다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으면 되는 모양이지.”

그러나 그는 결코 한가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서류에 조의 도장을 받아갔고 더 많은 서류들이 그의 미결함에 쌓여졌다.

“월말에다가 토요일이 되어서 좀 바쁘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다>

김 군은 나의 벗이다. 그가 시냇가의 푸른 소나무 숲속 산기슭 한 곳을 구해 조그만 정자를 지었다. 각 모서리에 기둥을 세워 가운데는 비워두고 폴로 지붕을 얹고 대나무를 엮어 벽을 만드니, 멀리서 보면 깃으로 지붕을 꾸민 그림배 같았다. 이 정자를 휴식할 곳으로 삼고서 선생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그대는 장주(莊周)의 우언(寓言)을 들어보았는가. 장주가 ‘옛날에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햇빛 아래에서 도망쳤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더니만 나무 그늘에 들어가자 그림자가 돌연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대개 그림자라는 것은 한결같이 사람의 형체를 따르는 것이니,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그림자도 고개를 숙이고, 사람이 고개를 치켜들면 그림자도 고개를 치켜들며, 그 밖의 오고가는 행동을 오로지 형체가 하는 대로 따른다. 그러나 그늘 아래와 밤에는 없어지고 불빛 아래와 낮에는 살아나니, 사람의 처신도 이와 유사하다. 사람이 태어날 때 조물주에게서 형체를 받으니, 조물주가 사람에게 장난치는 것이 어찌 형체가 그림자를 부리는 것 정도에 그치겠는가.

그림자가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것은 형체의 처분에 달렸고, 사람이 천변만화하는 것도 조물주의 처분에 달렸다. 사람된 자는 당연히 조물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니 내가 무슨 간여할 것이 있겠는가. 아침에 부유했다가 저녁에 가난해지고, 예전에 귀한 사람이었다가 지금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모두 조물주가 풀무질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이다. 나의 한 몸으로 본다면, 예전에 높은 관을 쓰고 조정을 출입했다가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숲과 골짜기를 거닐고, 조정의 어진 신하와 단절하고 고라니며 사슴과 짝이 되었다. 이 모두가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장난을 쳐서 그렇게 되는데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니, 이에 대해 무슨 기뻐하고 성낼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김 군이 말하기를,

“그림자는 진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선생의 경우는 인생의 실의와 득의가 자신에게 달렸으니 세상에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밝은 시대를 만났으면서도 재능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생이 대답하기를,

“흐름을 타면 가고 구덩이를 만나면 그치는데, 가고 그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산림에 들어온 것은 하늘의 뜻이니, 비단 그림자를 설 뿐만이 아니라 서늘한 바람을 타고 조물주와 벗이 되어 까마득히 먼 들판에 노닐고 그늘 속으로 사라지면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 터이니, 식영(息影, 그림자를 씌)으로 이름하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김 군이 말하기를,

“이제야 선생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적어 주시면 정자의 이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2-1. <가>에 나타난 부판의 ‘지혜’를 요약하고 <나>의 한 인물에 적용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에 삽입된 우언에서 보이는 운명에 대한 관점을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와 연관지어 기술하고, 각 인물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논하시오. (600±60자)